



누아르? 블랙코미디? 객석 휘감은 '검은 웃음'

1940년대 음울한 할리우드 배경 현실과 대본 속 세계, 이종구조 눈길 즉흥 스킷송 등 스타일리시한 연출



해피엔딩으로 끝맺는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의 피날레(왼쪽 사진). 탐정 스톤(테이 분·왼쪽)이 사건 의뢰자로 받은 수표를 들고 비서 올리(박혜나 분)와 기뻐하고 있다.



블랙코미디 누아르. 꼭 짜면 검은 물이 똑똑 떨어질 것만 같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것이 1989년이나 30년이나 된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첫선이다. "이거 영화로 나왔던 거 아니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맥 라이언이 나왔던 동명의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이 있었다. 하지만 제목만 같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 영화는 뮤지컬보다 9년 뒤에 나왔다. '시티 오브 엔젤'은 '천사의 도시', 우리가 잘 아는 로스엔젤레스(LA)를 의미할 뿐이다.

뮤지컬의 배경은 1940년대 미국 할리우드. 음울하고 냉소적인 범죄영화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다. 눈이 아플 정도로 강조된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 거칠거칠한 질감, 예의 염세적이고 시크한 사설 탐정 등장, 재즈클럽의 자욱한 담배연기, 내 편인지 악당인지 알 수 없는 팜파탈 여주인공, 돈과 권력을 쥔 악당들이 서로 총질을 해대던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은 이 전설적인 필름 누아르 시대를 무대로 옮

겨놓은 작품이다.

1막을 보고 나서 떠오른 단어는 '스타일리시(stylish)'였다.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뮤지컬을 국내에서 본 적이 있었던가. 가사없이 즉흥적으로 부르는 스킷송으로 시작되는 프롤로그 장면에서 이미 "좋은데?"하고 말했다.

누군가는 이 작품을 보고 "누아르 영화를 뮤지컬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프랭크 밀러 그래픽 노블(예를 들어 썬시티)의 뮤지컬 버전이라는 느낌이 세다. "이래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쏟아 부은 영상

효과가 한 몫을 했다.

'시티 오브 엔젤'은 극중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극작가 스타인의 현실 세상과 그의 대본 속 탐정 스톤의 가상공간은 컬러와 모노톤으로 대비된다. 객석 쪽에서 배우에게 조명을 쏘아 만든 그림자 등은 출연료를 받지 않는 배우들이다. 스타인과 스톤을 제외한 다른 배우들은 1인 2역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인의 연인인 게비가 영화 속에서 스톤의 옛 애인인 여가수 바비로 등장하는 식이다. 현실과 영화 속의 캐릭터들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조인트'를 하나

씩 발견할 때마다 작은 쾌감이 웃음으로 폭발한다. 맨 앞에 언급했지만 이 작품은 '정통 누아르'가 아니라 '누아르'를 걸친 블랙코미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1막 끝에 '넌 안 돼 나 없인(You're nothing without me)'을 노래하며 대립각을 세운 스타인과 스톤은 2막 끝에서 '너 없이 난 안돼(I'm nothing without you)'를 부르며 피날레를 맺는다. 사실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일 것이다. 10월 20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문화

15

2019년 8월 23·24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공연·전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OST 나온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 역사를 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OST가 9월 3일 발매된다. 프랑켄슈타인에 출연해 무대를

빛냈던 스타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유준상, 박은태, 한지상, 박민성, 카이, 서지영, 이지혜, 이정수가 노래하고 30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실황의 감동과 열기를 재현한다. 제작진의 특별한 요청으로 옥주현도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총 16곡이 수록됐으며 프랑켄슈타인의 명 넘버들인 '단 하나의 미래', '혼잣말', '난 괴물' 등을 만날 수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9월 6~8일 | 평화문광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문화예술축제. 3일간 12편의 공연, 5개의 전시와 각종 부스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 사회는 개그우먼 김지민과 2AM의 창민이 맡는다. '해바라기 콘서트', '문화 ON 가족콘서트 올림', '프리즘', '이야기가 있는 매직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 등 장애인·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미술과 함께 신화의 세계로... '북유럽 신화'를 만나다

신간

●그림이 있는 북유럽 신화'

(김원익 저 | 지식서재)

우리는 왜 신화를 읽는가, 아니 왜 읽어야 하는가.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깔끔하게 정리했다. "신화는 절망, 기쁨 혹은 성공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신화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준다"라고. 신화는 삶의 좌표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다.

자, 그림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전세계 판타지 팬들을 매료시킨 '왕좌의 게임' '반지의 제왕' '토르'... 광대한 원시 자



◀김원익 박사(왼쪽).

연과 독특한 세계관, 매력적인 캐릭터로 지구인을 사로잡았다. 이런 스토리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그 출발점을 추적해 보면 천재 아티스트의 머리가 아니라 북유럽 신화와 맞닿는다.

북유럽 신화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다. 신

화의 대표형사로 신화열풍을 이끈 그리스 신화가 너무 각인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주로 신들의 갈등과 충돌의 끝맺이지만 꺾질을 벗기고 보면 인간들의 이야기다. 따라서 고대 인간이 살았던 곳곳에는 다양한 신화가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북유럽 신화를 소개하는 책을 만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 책방에 선보인 '그림이 있는 북유럽 신화'가 그렇다. 낯선 신들의 이름과 복잡한 계보로 가끔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하지만 꼬인 실타래를 푸는 희열도 있다.

신화는 미술과 떼어질 수 없는 법. 이야기를 쉽게 풀기 위해 '미술조교'를 내세웠다. 이 책에 실린 18세기 필사본부터 19~20세기 초 유명 삽화가들의 작품 130점은 신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훌륭한 '미술 조교'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낯익은 신들도 많다. '천둥의 신' 토르, '악의 화신' 로키, '여전사' 발키리아, '불의 여인' 수르트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됐으니 콘텐츠의 질은 보장하고도 넘는다. 저자인 김원익 박사는 오랫동안 신화를 연구해 온 신화학자다. (사)세계신화연구소를 창립해 신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동기', '오디세이아', '신화, 인간을 말한다', '신들의 전쟁' 등 그가 쓴 신화 관련 책이 10여권이 넘는 정도로 열정적이다. 공중파 TV나 대학 기업 등에서 인기 강사다.

김원익 박사는 "북유럽 신화는 선악의 전경에서 선이 승리한다는 간단한 공식이지만 인간에게 황금(물욕)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소개했다. 양형모 기자

양평 힐링 토지 급매

1) 590㎡ (178P) 8,500만원 (토목완료)
2) 603㎡ (182P) 1억원 (토목완료)

● 양평군 단월면 위치, 관리지역 ● 정남향, 산음 휴양림 인접
● 숲, 개울이 접한 전원주택부지 ●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010-4591-9199

창업자 모집

열정과 끈기로 융복합 플랫폼 사업을
함께하실 분 모집합니다.
재구매율 90% 부업문의, 전업주부가능
나노칼슘 개미 허리 프로젝트2 밸런스-X

010-9529-0060

수출 및 장사 하실분

의류/가방/신발/주방/문구/팬시/화장품/이사짐/
유품정리/구제의류/매장 및 창고정리/폐지물

모든 상품을 사고 팝니다

덤빙전문 상담환영

투자하실 분 환영
오만잡것 사고팝니다.

성일유통 **010-5401-2737**

콘도 회원권 급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가 매각합니다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명, 거제, 경주, 제주, 단양, 여수, 변산, 양양, 삼척, 청송, 천안, 고양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명, 휘닉스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패밀리(스위트) 개인 무기명	3,110	1,780
		패밀리(스위트) 법인 무기명	4,000	2,20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충주, 제주서귀포, 한림, 해운대, 경주, 남원, 하동, 포천스키장, 청평, 수안보, 도고	패밀리B (21) 방1	1,550	760
		스위트A (26) 방2	1,980	960
		스위트B (31) 방2	2,120	1,060
		로얄스위트 (35) 방3	2,600	1,660
금호리조트	통영, 화순, 제주, 설악 (충무마리나), (경주, 양산, 해운대, 강촌)	패밀리형 방 1개	1,890	850
		스위트형 방 2개	2,700	1,25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104 대산빌딩 4층

태양광

설계 제작 시공

발전소 귀농용
부동산매입

82에너지

010-8222-2222

1인 창업 학원

《동업자 모심, 성업중》

▶ 투자금 2,000만원
▶ 월수입 2백만원 이상~

010-4788-3300

개별만남 외로운 사람끼리

남녀 소개팅

처음부터 통화하다
맘에들면 친구나 애인하고
취미생활 및 결혼까지

1800-3379
010-4299-2121

활력충전소 좋은친구들